

중학교

명절 연휴, 자녀와의 진로대화를 위한  
2019-16호(특집)

# 드림 레터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 특집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http://www.parents.go.kr)

## 친척에게 들어보는 ‘일하는 삶’



###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진로 전문가들은 중학생 시기가 진로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고 말합니다. “중학교 3년이 앞으로의 30년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진로탐색, 학업, 친구관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신을 잘 살피고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조급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들여다보며 진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찬찬히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친척들과 함께 진로, 직업 이야기를 나눠요

특히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많은 친척들과 교류할 수 있는 명절 연휴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진로탐색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희망 직업군에서 일하는 친척이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희망 직업군의 인물을 만나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은 진로에 대한 탐색에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아직 관심과 흥미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다양한 직업군의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흥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친척들과의 만남을 진로탐색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이끌어주세요.



### 또래 이야기, 학부모님 이야기도 중요한 가이드

친척 어른들과의 만남만큼 또래와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또래의 친척과 서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방향의 진로를 탐색 중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자신의 꿈이나 장래희망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친척이 많지 않은 편이라면 학부모님이 친구처럼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세요. 학부모님의 어린 시절 장래희망이나 중학생 시절 친구들과 나누었던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돌이켜 자녀에게 들려주세요. 학부모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조부모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에 대한 이야기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진로탐색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 친척들과 함께 알아보는 진로흥미 유형

진로흥미를 파악해 두면 진로적성을 확인하고 이후의 진로탐색 방법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로흥미를 소재로 대화를 나누면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각자의 진로흥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친척들의 진로흥미 유형이 지금 하는 일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녀 스스로 자신의 흥미 분야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실형의 진로흥미를 가졌더라도 관습형 직무인 사무직에 종사하는 친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로흥미 유형은 한 가지로 특정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여러 성향중 어떤 것이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정도로만 활용하세요.

